

광양시, 빅데이터 활용 '시정 과학화' 꾀한다

광양숯불구이축제·국민신문고 민원 등 분석 결과 토대 다양한 업무 활용기로 'CCTV 설치 예정지' 등 10건 적용도

광양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정의 과학화'를 추구하고 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정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광양숯불구이 축제'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인 '해안'을 활용해 비예산으로 추진했다. 분석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제공해 관광진흥 기본계획, 업무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광양숯불구이 축제' 소셜 분석은 최근 3년간 관련 보도자료(SNS 포함)를 분석한 결과로 주요 홍보 매체는 뉴스(77%)이며, 홍보 내용은 문화행사, 숙박업소, 음식점 순이다. 홍보 건수는 2016년 73건에서 2018년 197건

(270% 증가)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개최하지 않았다.

'국민신문고'는 지난해 민원데이터 1만2780건을 분석한 것으로 94%(1만1996건)가 지역 내 민원이다. 이 중 48%가 중마동에 해당되고, 74%가 불법 주차 등 교통 관련이었다. 평균 민원처리 시간은 5.73일로 분석됐다.

광양시는 시정 현안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CCTV 설치 예정지' 등 10건의 빅데

이터를 분석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녹시율 분석' (특정 지점에서 녹지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옥 광양시 정보통신과장은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의 4대 핵심(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중의 하나로 시정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돌산갯 '인기 상한가'

매출 지난해보다 63% 증가 84억

여수를 대표하는 돌산갯이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돌산갯 생산량과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

생산량은 9742t으로 지난해(8791t)보다 11% 늘었고, 매출액도 84억원 기록해 지난해 52억원보다 63% 증가했다.

매출 단가는 1kg당 877원으로 지난해(591원)보다 48% 올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하면서 외식을 줄이면서 갖김치를 주문하는 가정이 늘어난 것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홈쇼핑 등 갖김치 주문도 1.5배가량 늘어났다.

여수시 관계자는 "봄 갯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갖김치 주문이 늘어 매출도 뛰고 있다"며 "병충해를 잘 견디는 종자를 보급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시민이 생태도시 조례 만든다... 100인위 출범

찾아가는 토론 통해 의견수렴·초안 작성 대표위원장에 신광래 주민자치위 회장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 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100인 위원회' (이하 100인 위원회)는 최근 별량면 화포해변 선착장에서 발대식을 했다.

100인 위원회는 발대식을 마치고 '바다의 날'을 맞아 화포해변에 유입된 페어망 등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쳤다.

100인 위원회는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장에 신광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이 선출됐다.

100인 위원회는 '1000인 위원회'로 확대해 찾아가는 작은 토론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조례 초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민의 손으로 만든 조례 초안은 세부 법률 검토와 순천시 관계 부서 조안을 받아 확정된 뒤 범시민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100인 위원회'가 최근 별량면 화포해변 선착장에서 발대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순천시 제공>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통해 10월 중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광래 대표위원장은 "생태도시의 경쟁력은 생

태에 관한 시민 인식 확산과 실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태도시 조례 제정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생태도시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 앞

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 도양 북촌도시계획도로 개통 지역주민 불편 해소



고흥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도양읍 '북촌도시계획도로'가 지난 2일 개통, 주민 불편이 해소됐다.

북촌도시계획도로는 도양읍 소재지와 장예, 잠두, 장수, 신흥마을 등을 잇는 중요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0.4km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병목현상에 따른 차량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도양읍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도로는 1985년 4월 군 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되면서 총 1.9km 중 1.5km가 확장·포장 됐으나 0.4km 구간만 확장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컸다.

또 도양읍의 지속적인 사업 건의에도 불구하고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고흥군은 토지 소유주들의 협조를 통해 지난해 6월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총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올해 초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2차선 차도와 양측 보도를 갖춘 도로 확장·포장을 마무리했다"며 "요철이 심한 기존 접속도로도 함께 정비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곡성군 18억 들여 보훈회관 준공

읍내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 보훈단체 소등·교류 공간 활용 기대

곡성군이 지난 2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을 준공했다. <사진> 곡성보훈회관은 지상 2층, 부지 2746㎡, 연면적 500㎡ 규모로 곡성을 읍내리 일원에 건립됐다.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곡성군지회 등 곡성군 보훈단체 사무실과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곡성군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 의회 의결을 거쳐 순천시 등 4곳을 벤치마킹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20일 건축 및 주변 환경정비를 마쳤다. 공사비로 18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상이군경회 곡성군지부 관계자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보훈인들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